

2024 년 마을 체험



2년차 수련자인 우리는 셰이크푸라 마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섯 그룹으로 나뉘어 여섯 개의 다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페인, 데올레, 찬디, 로디푸르, 춘니푸르, 마니푸르. 7월에는 5일간 M. 조티샤 수녀님과 함께 사회 분석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있을 체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9월 9일, 우리는 비지타 수녀님과 함께 셰이크푸라로 출발했습니다. 셰이크푸라에 도착하자마자 수녀님들과 여성 교육센터 어린이들,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다야 수녀님은 우리를 위해 5일간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는 저희 사도직에 대단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9월 15일에는 활성가들과 함께 각자의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마을의 가족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따뜻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박한 생활 방식과 관대함,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소외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기쁨과 슬픔, 아픔을 터놓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기꺼이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높이 샀습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마음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 노인과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지렛의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작은 나눔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도와 역동적인 세션으로 사도직 장소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준 아말라, 수지타, 조티샤, 우다야, 디피카, 수쉬마 수녀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경험은 우리의 삶과 선교를 통합하고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체험은 완전히 다르고 독특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앨리스 수녀님, 관구장 수녀님과 리더십팀, 수련소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딥티, 날리마, 레카, 비지타, 사비나, 아지타 수녀님 등 수련소 공동체에 이 멋진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체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주심에 감사합니다.